

광주 진남중, 청소년 모형차 전국대회서 1위·3위 '쾌거'

(주)현대자동차 주최...전국 90팀 물리치고 WRC(세계랠리선수권대회) 참관 기회



광주 진남중학교교장 나선희(가) 7일부터 9일까지 한국잡월드(성남)에서 진행된 2019 현대자동차 청소년 모형자동차 전국대회 결선대회에서 1위와 3위를 거머쥐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대자동차(주)는 자동차 산업의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청소년이 스스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매년 현대자동차 청소년 모형자동차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8회 현대자동차 청소년 모형자동차 대회에는 전국에서 본선 90팀, 결

선 30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진남중학교는 지도교사 고준호(기술·가정)의 지도로 팀명 폴라스트리3학년, 송준영, 유선우, 이정우와 팀명 The Car Masters(3학년, Frankie Fan; 이승환, 기민재) 두 팀이 신형차를 제작하여 서류심사를 거쳤고, 올해 6월15일 본선 대회에서 기획평가와 주행평가를 거쳐 8월7일(수) 결선대회에 두 팀 모두 진출이 확정되었다.

결선대회에서는 기획평가, 품동평가, 주행평가를 거쳐 최종 토너먼트 결과 전

국 1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 성과를 여담까지 반납하며 지도교사와 함께 참가 학생들이 직접 모형 자동차를 제작하면서 좀더 가벼운 자동차, 좀 더 빠르게 트랙을 통과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연구와 연습을 거듭한 결과, 1위(폴라스트리), 3위(The Car Masters)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당초에는 1위와 2위를 목표로 하였으나, 조 추첨에서 두 팀이 같은 조에 편성되면서 어렵게 한 팀이 3위를 하게 되었다.

1위는 교육부장관상과 함께 유럽에서 개최되는 WRC(세계랠리선수권대회) 참관 기회가 부상으로 주어졌으며, 3위는 잡월드이사장상과 함께 30만원 상당의 부상으로 함께 받게 되었다.

이번 대회를 지도한 교사 고준호는 "아이들이 대회를 준비하고 참가해 보는 과정에서 더 큰 꿈을 갖게 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이야기 했다. 1위를 거머쥔 폴라스트리 팀장 송준영은 "몇 개월의 시간 동안 대회를 준비하며 포기하지 않고 팀원들과 같이 서로 노력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다.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인호 기자

순천대 '후원의 집' 개설 및 현판식 개최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최근 순천 왕지동 법원맛집(해물), 순천 월등면 송치마을(한식), 순천 조례동 자금성(중화요리) 등 3곳을 대학 '후원의 집'으로 신규 개설하고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고영진 총장을 비롯해 법원맛집 김미경 대표, 송치마을 송국현 대표, 자금성 이영선 대표 등과 대학발전지원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현판식에서 각 업체 대표들은 매

월 일정액의 발전기금을 대학에 지속적으로 후원하기로 약정했다.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맛집으로도 잘 알려진 '송치마을' 송국현 대표는 "지역민들의 사랑과 입소문 덕에 맛집으로 널리 알려졌다"며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지역 유일의 국립대인 순천대 인재양성에 작은 힘이라도 더하고 싶어 후원의 집 개설에 동참하였다"는 소감을 밝혔다.

고영진 총장은 "지역 대표 맛집 3곳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한마음으로 발전기금 후원을 결심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대학의 발전을 위한 뜻을 보여주시니 총장으로서 학생이 성공하는 대학을 만들어 이 은혜를 갚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대학교 '후원의 집'은 매월 월정액 이상의 발전기금 기탁을 약정할 경우 개설되며, 현재 대원식당, 백우, 명궁관 등 순천 대표 식당과 진보석, 삼성과학사 베니사프 등 다양한 지역 대표 업체 53개가 등록되어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직업계고 학생 안전을 위한 약속

광주시교육청-한국환경공단, 화공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MOU



광주시교육청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안전점검이 강화된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13일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본부장 진호연)와 '광주 직업계고 화공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엔 시교육청과 유관기

관 협치를 통해 학생을 위한 안전한 실습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력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교육청은 화공분야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8월28일부터 광주 직업계고 화공 실험·실습실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학생과 교사 대상으로 화공실습실 안전 수칙, 화학물질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실험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교육청에선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광주에서 직업계고 화공 관련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광주전자공고에너지환경과, 전남공고 화학공업과, 금과공고 생명화학공과 등 3개교이며 운영 중인 실습실은 총 17곳이다.

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와 협치를 통해 공업계고등학교 실습장 안전점검과 학생대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컨설팅을 통해 용접·납땜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제거 설비 설치 등 유해 실습장 개선 사업을 실시해 안전한 실습환경을 조성해 왔다.

2018년부터는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직업계고 전체 학생에게 마스크, 보호복, 안전화, 안전 안경, 안전모, 안전 장갑 등 실습 안전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있다.

교육청은 올해 환경공단과 MOU를 통해 화공 실험·실습 분야에 대한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인호 기자

장흥고, 다문화음식으로 행복 나누고 소통 더하고

훈민정음 동아리와 함께하는 다문화음식만들기 체험



장흥고등학교(교장 김광수는)는 지난 11일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훈민정음 동아리 학생들과 다문화 가족 학생 및 학부모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문화 음식 만들기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봉사동아리인 훈민정음 회원들의 1학기 마지막 멘토링 활동으로 다문화 가정 멘티의 부모님을 초대하여 다양한 음식을 만들며 부모-자녀가 소통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아리 학생들이 국제결혼이주여성 지도를 받아 5개국의 다양한 음식 만들기 체험활동을 했다. 베트남(월남쌈), 캄보디아(짜진), 필리핀(툰피야), 중국(쥬차이하즈, 한

국김치전)의 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음식 만들기 활동에 참가한 2학년 100학생은 "평소 잘 알지 못했던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 다같이 어우러진 한 가족이 된 기분이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김현정 지도교사는 "여러 나라 전통 음식을 만드는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멘티 학생들이 어머니 나라에 자긍심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흥고는 훈민정음(다문화가정 학습·정서 멘토링), 배리어(다문화 가정 학습지도), 컨설팅(벼하그리기), 모자동행봉사단(산외계종 봉사)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봉사활동 동아리를 운영해 바람직한 봉사활동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교육연수원, 해외 항일 유적지 탐방으로 역사의식 '활활'

광주 교원들이 러시아, 중국 등 항일 유적지를 5월5일부터 8월10일까지 4번에 걸쳐 탐방하며 역사의식을 키웠다.

12일 광주교육연수원(원장 김동일)에 따르면 교원들이 직무연수로 탐방한 곳은 일제 강점기 암흑했던 시절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연길, 용정, 명동촌, 하얼빈, 대련 등 해외에서 독립 운동가들이 활동했던 지역이다. 5월 교감, 6월 교감, 7·8월은 초·중등 교사 등 총 4회 교원 98명이 참여했다.

연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사전 연수, 현지 연수, 사후 연수 등 3단계로 진행됐으며 연수 내용과 소감들은 책으로 발간·보급될 예정이다. 또한 7일 동안 항일 유적지 탐방 기록을 원격연수 콘텐츠

로 개발해 내년부터는 전국 교직원들이 수강하는 원격연수과정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4기 연수에 참여한 동림초 김해령 교사는 "척박한 땅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교육현장으로 돌아가 학생들에게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전례사대부고 김호진 교사는 "교과서로만 가르친 역사를 해외 독립운동의 현장에 직접 와 보니 가슴이 뜨거워지고 독립 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에 감사하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뜻을 다시 새겼다"고 밝혔다.

연수원은 해외 연수 이외에도 역사교



사 직무연수, 장흥 안중근 루트 역사문화 연수, 나주 영산강 역사문화 현장 연수 등을 운영한다. 또한 교직원·학생·시민 대상으로 '2019년 역사해 해'를 홍보하기 위해 연수원 정문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조인호 기자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